

코로나 앱·편백 가글...위기속 뜨는 新 경제

장성 피톤치드·피톤치약 생산업체 대박...매출 3배 ↑
광주 모바일업체 '코로나알리미 앱' 열흘만에 700명 이용
집콕 답답함 피해 등산·캠핑족 늘어 관련상품 매출 급증

코로나19 확산에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특색 있는 발상으로 위기 속 기회를 찾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개인 위생·청결 관련 상품 매출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백련동편백농원(주)는 올해 본격적으로 내놓은 '피톤 가글'과 '피톤 치약'이 대박을 터뜨렸다.

이곳은 한 해 6만~6만5000명이 찾는 숲 체험장과 교육장이 주 수입원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품 판매가 늘면서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다.

휴대용(10ml)인 이 구강세정제는 3~5년생 편백잎을 사용해서 만들어 특허도 출원했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답답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피톤 치약'도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제품은 서울 등 전국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4000개 주문을 받고 있다. 가격은 1만~1만5000원으로, 이 업체에 따르면 6개

월 판매할 양이 한 달 만에 나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김진환(35) 백련동편백농원 팀장은 "편백 관련 상품 30여 종 매출은 지난해 말 보다 2~3배 된 상태"라며 "실내용으로 적합하도록 개량된 편백 목욕도 공기정화식품·반려동물 구실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월24일~3월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서 실내용 식품과 배양도는 지난해 보다 각각 57.8%, 13.2% 더 팔렸다.

광주기업 브레인아이어(주)가 개발한 모바일 앱 '코로나19 광주알리미'는 운영 열흘 만에 이용자 수 700명을 앞두고 있다.

이 앱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현황과 이동경로, 마스크 구입처, 재고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제공 정보는 광주·전남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외 선별진료소 현황과 예방수칙, 방역현황, 신천지 점검현황, 휴관·행사취소, 국민안심병원 목록 등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오히려 도심에서 벗어난 등산과 캠핑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축제 등에 갈 수 없으니 인파가 덜한 산과 캠핑장으로 떠나는 가족이 늘면서다. 최근에는 차를 활용하는 '오토캠핑'과 거실에서 캠핑 분위기를 내는 '실내 캠핑' 관련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광주지역 4개 이마트의 13~15일 등산용품과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5.9%, 15.7%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루 4000개 이상 팔리는 '장성 편백 가글(오른쪽)'과 광주기업이 만든 '코로나19 광주알리미' 앱.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몰과 전국 매장 등에서 등산용품과 스포츠용품 행사를 연다.

소비자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 뷰티'도 대세다.

헬스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 트레이닝족'도 급격히 많아지면서 (주)광주신세계에 있는 레깅스 전문브랜드 '안다르'의 지난 달 운동복 매출은 지난해 보다 29%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686.24 (-18.52)	↓ 금리(국고채 3년) 1.07 (-0.06)
↑ 코스닥 516.61 (+10.93)	↑ 환율(USD) 1232.80 (+2.90)

광주은행 '특특 자문단' 활동 본격화

4기 발대식... 11월까지 활동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4기 특특 자문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은행은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자문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자문단 9명은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광주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의견을 낼 예정이다. 참여하는 부문은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제도 개선 및 도입 등이다.

'특특 자문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 3기 자문단이 낸 영업점 서비스 및 비대면 채널 프로세스 등 의견 36건은 실제 운영에 반영됐다. 송행장은 "4기 특특 자문단을 통해 고객수 파악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젊은층 고객부터 중·장년층 고객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고객에 사랑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전기차 구독서비스 '기아플렉스 EV 라인' 선보여

기아자동차(주)는 26일 전기차 전용 구독 서비스 '기아플렉스(KIA FLEX) EV 라인'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기아플렉스 EV라인'은 월 단위 요금 87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니로 전기차 또는 쏘울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기아차 최초 전기차 구독 서비스다.

기아차는 업계 최초로 전기차 무제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 상품을 마련, 월 6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이용 고객의 충전 부담도 낮췄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계약부터 반납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러시아산 Siberian Chaga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해양에너지 'SNS외부 서포터즈' 수료식 (주)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최근 '2기 SNS외부 서포터즈'의 활동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전남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전한 가스관리와 다양한 에너지 정보 등을 소개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백년가게' 신청 모든 업종 확대...세탁소·미용실도 가능

중기부, 올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모집...대기업 중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각 30년 이상, 15년 이상 된 사업체가 대상이다. 혁신 의지와 차별성,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까지 백년가게 334개와 백년소공인 100개가 나왔다. 기존에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됐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도 올해부터 모든 업종(단일 제조업·정

로 완화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할 때 융자금리가 인하된다.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이 우대된다. 또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 시 자부담이 면제되며, 백년소공인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과 기술지원사업 선정 시 기점 부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돈 안되는 어류양식...전남 생산량 18% ↑, 생산금액 72억 ↓

통계청, 전남 경영체 604개·종사자 1854명 전국 최다

전남지역 어류양식 경영체와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5200t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수치다. 전남지역 생산량은 전국의 31.2%를 차지하는 2만6643t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종은 넙치류(1만8100t)였고, 농어류 생산량(400t)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

했다. 지난해 전남 어류양식 생산량은 전년보다 18%(4060t) 늘어났지만 생산금액은 -2.5%(72억4500만원) 감소했다. 생산금액 규모별로 보면 전남에는 1000만원 미만 경영체가 154개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미만 153개 ▲5억~10억원 미만 80개 ▲1000만~5000만원 미만 76개 ▲10억~20억원 미만 74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643개 경영체 가운데 전남이 604개(36.8%)로 가장 많았고 경남 520개(31.6%), 제주 282개(17.2%), 충남 121개

(7.4%), 경북 74개(4.5%)가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어류양식 경영체는 10년 전인 2009년(1134개) 보다 절반 가량(46.7%) 줄었다. 전남 종사자는 1854명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전국 종사자 수는 지난해 5524명으로 전년보다 2.0%(111명) 줄었다. 최근 어종별 판매가격 하락과 겨울철 저수온, 여름철 고수온 등 이상기온 영향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경영체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